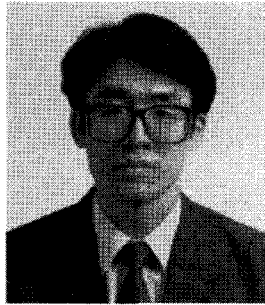


상호보완성 높은 남북농업 충분한 국제경쟁력 확보 기대

UR, 더욱 어려워진 우리농업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세계 각국은 이제 서로간의 협력 속에 경쟁하며 살아야하는 국제화 및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국가간의 경계가 없는 세계무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개방화 및 세계화는 지구의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달리 빠르게 변모해 나가는 속도감을 실감케 한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라운드, 신기술에 대한 후발 개도국들의 무분별한 복제와 모방을 방지하는 기술라운드, 그리고 노동라운드와 경쟁라운드 등 국제적 규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가운데 바야흐로 지금은 국제경쟁력 배양이 없는 국가를 지탱하기에 어려운 무한경쟁 시대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한마당의 지구촌 추세와는 달리 지역 내의 협력으로 공존번영을 강조하는 지역경제 불력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문화적, 정치적 특수성이 매우 커서 많은 나라가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주장하여 왔으나 일반상품



송 관 정

농촌진흥청 열대농업관실

과 함께 일괄타결됨으로써 타선진국에 비하여 농업인구의 비중이 다소 높고 농가소득에서도 많은 부분을 짊어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보다 농업생산기반이 낙후되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국내 타산업에도 뒤처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농업으로서는 실로 벽차고 벽찬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임금수준이나 토지가격은 농업경쟁국들에 비해 높고 영농규모가 영세하므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외국농산물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우리농업이 받을 타격이 심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으로 농업 경쟁력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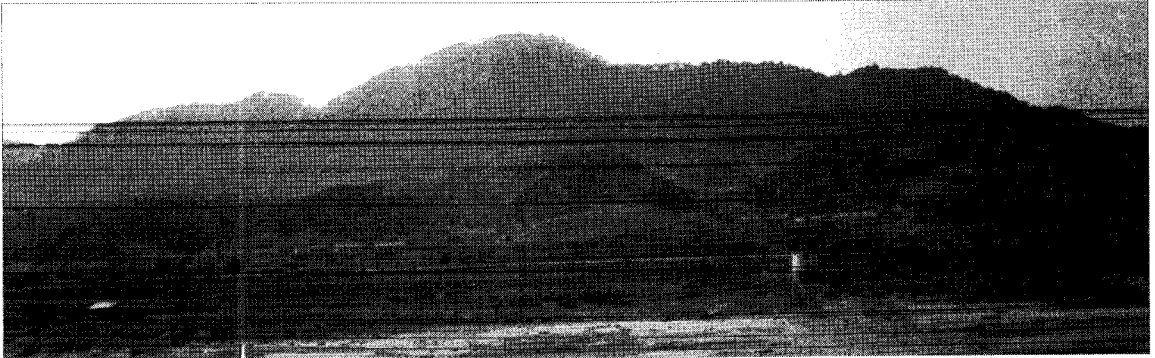
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상호간의 보완성이 매우 큰 남북한의 농업을 결합시키는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국제경쟁력 배가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남한은 기술중심의 농업추구

남한의 농업은 미국 중심의 농업으로 농가당 평균경지면적 1.2ha의 영세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인구는 1970년에 총인구의 44.7%를 차지하였으나 현재('92)는 13.1%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부녀화, 노령화 추세로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결국 생력화, 기계화 및 기술·자본 집약화로 변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노동집약적 생산체계에서 벗어나 기술 및 자본집약적 농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기술 수준을 보면 과거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는 대체로 세계의 평균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여지나



차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농촌전경. 진짓줄 사이로 산아래 경사지는 옥수수밭, 그 아래 평야지는 벼논이다.

UR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우리의 농업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인 것이다. 부분별로 살펴볼 때 수도(쌀)는 세계적 수준으로 양질미·다수성 품종개발과 비료, 농약 등 재배기술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원예는 품종개량과 비료, 농약 등 재배기술이 국제적으로 평균수준이며 더욱이 수도 및 원예 생산분야에서 기계화 및 수확후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에 있어서 고품질·고능력 종축육종기술 및 사양관리 기술은 국제적으로 평균수준이나 축산폐기물 처리시설화 및 시설 현대화에는 개발이 필요하고 첨단과학인 생명공학기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농법 또는 환경보전형 농법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생물농약기술 및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적정시비를 위한 중합비배 관리기술, 가축사양의 종

합화 및 자동화 기술 등 고품질·고능력 생산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공학기술 등의 개발이 절대적이다.

일부 농민들은 개방체제하에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이 낮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작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나 부패로 인하여 수송에 문제가 있는 채소류, 현재에도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약하나 맛과 품질의 향상,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인삼, 고추, 쌀 등은 생산기반 확충과 기계화, 자동화 등 과감한 경영혁신, 기술개발, 품질위주 농업을 추구함으로써 UR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발작물 중심 집단생산

북한은 경지면적 1백97만4천ha 중 밭이 68.7%인 1백36만ha로

31.3%인 61만4천ha의 논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여 밭작물 위주의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밭작물에서는 특히 옥수수 재배(60%)가 주종을 이루고 두류(20%), 서류(10%) 등이 재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토지의 사유화를 폐지하고 대규모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을 건설하여 생산수단을 집단화하였다. 이러한 집단화는 기계화 영농에 필수적으로 현재 우리가 많은 투자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북한은 많은 작물의 대규모 주산단지를 만들어 왔는데 과수의 경우 1967년 황해남도에 대규모 과일 재배단지인 과일군을 만들어 70%이상의 군면적에 과수를 재배 생산하고 있으며 대규모 가공공장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농업생산 기술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때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옥수수 등

남북한 농업현황과 통일후 한국농업의 전망

밭작물의 경우는 재배기술이나 품종육성에서 상당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작물의 재배기술이나 품종육성 기술수준은 낮아 주로 소수의 다수성 품종과 대부분의 재래종에 의존한 노동 집약적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품질면에서 매우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밤나무에서 재래종인 약밤계통의 함종밤과 큰밤계통의 양주밤은 병 저항성이 높고 단맛이 있어 해방전부터 북한지역의 주품종으로 재배되어 왔던 것처럼 재래종은 우수한 특정 형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은 춥고 표고가 높은 지역이 많으므로 내한성 품종육성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북한의 내한성 품종 및 재래종 이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과수의 경우는 1988년부터 4개년간 UNDP사업으로 '과수의 생산과 저장기술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을 도입, 활용하여 왔고 조직배양 및 왜성재배기술 이전도 추구하여 그 이용성이 높은 편이다.

상호보완성 높은 남북농업 통일후엔 국제경쟁력 배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농업은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통일조국이 실현된다면 양측의 생산자원 및 기술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조화형 농업을 구축

할 수 있고 남북한의 장점들이 균형있게 어우러져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배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요소중 첫째는 남북한이 통일됨에 따라 경지면적의 배가와 더불어 북한의 대규모 집단 및 국영농장의 합리적 이용으로 생산기반의 확충과 함께 영농의 규모화를 적은 비용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농의 규모화는 대형 농기계의 투입 등 자본집약적 농업을 가능하게 하여 영농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 노동력의 고용증대를 통하여 남한의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북한의 풍부하고 값싼 인적자원으로 대체 활용함으로써 다소나마 생산비를 절감시켜 농업생산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밭작물 위주의 농업과 남한의 미곡중심의 편중된 농업간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남한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생산하는 옥수수, 두류, 잡곡 등의 곡물을 도입하고 남한의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남한의 곡물자급과 북한의 식량문제를 민족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지역의 확대로 재배작형 및 품종의 다양화를 기하여 단경기를 줄이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

격의 급격한 등락현상을 감소시키는 물론 식생활 소비패턴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 영양공급면에서도 충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배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적지생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개발도 확대되어 품질의 고급화를 기할 수 있다.

넷째는 기술개발 및 기술의 활용 극대화이다. 남한의 앞선 기술을 북한의 농업생산체제에 활용하고 북한의 재래종 및 내한성 품종 등 우수한 유전자원과 일부 옥수수 재배기술 등 상당수준에 있는 밭작물 재배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남한의 고품질 품종육성 및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는 수출유망작목의 생산기반 확대이다. 남북한 농산물 교류 및 북한의 대외수출 실적에서 볼 때 북한 한약재의 남한으로의 반출은 반출총액의 20%를 넘어서고 있고 북한의 대일 수출 품목의 주종인 생사, 버섯, 약용작물 등은 남한의 대일 수출실적을 앞서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과일군(郡) 등의 사과 및 배의 대규모 과수생산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남북한 수출유망작목의 생산기반이 배가되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UR타결과 더불어 장차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하고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 여러 기업체들이 중국의 삼강평원 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 베트남의 메콩강 지역 등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현지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한 해외 농업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남북한의 단절로 우리의 전문인력과 농기계들이 우회하여 현지에 투입되어야 하고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한국 도입 시에는 육로와 해상을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수송비용이 높고 수송기간도 길어 수입대체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나 남북한의 통일은 중국의 삼강평원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농업생산기지에서 직송으로 연결되므로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여 국제경쟁력을 배가시켜 줌으로써 한국농업의 미래를 밝게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과, 배 등의 수출유망작목들은 수출능력이 더욱더 향상되고 인삼, 고추, 마늘, 양파, 옥수수, 보리, 감자 등도 생산기반의 확충과 선진기술의 투입으로 독특한 맛과 품질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생물공학, 신소재 개발 등 첨단요소 기술의 적용으로 통일후의 한국농업은 명실공히 기술중심의 종합산업으로 발전되어 개방화 및 무한경쟁의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미래 위한 각계노력 절실

통일후 한국농업이 개방화 및 국제화의 시대에서 세계농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사의 개방화 흐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폐쇄집단인 북한을 개혁과 개방화로 전환시킬 것이고 남북한의 통일도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현재 농업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통일전까지는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통한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통일후에는 생산자원의 배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5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결성된 북한농업연구회는 통일에 대비한 단계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무장지대내 '통일농장' 건설, 식량안정공급을 위한 농지보전 등의 공동연구 등 실현가능한 정책에 대한 검토 등 국내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와 연구활성화를 통하여 북한농업연구를 이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를 비롯한 중국, 몽고,

북한이 참여하는 UNDP동북아 4개국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이 이미 지난 4월 북경에서 시작을 알리는 최초회의가 개최되어 각국의 역할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한 남북한의 농업분야 협력도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질 전망이었으나 불행히도 북한은 핵문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 지도층의 태도에 따라 그 참여의 길이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농업분야 교류협력의 창구와 촉매제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또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분위기 조성과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학술회의(7. 17~7. 26, 9개국 130여명 참가) 및 한·중 과학심포지엄(8.5~8.12)에 대학, 한국과학재단, 농촌진흥청 등 여러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주변국가들의 관심제고와 함께 농업분야 교류협력의 기틀마련에 기여가 예상된다.

농약정보